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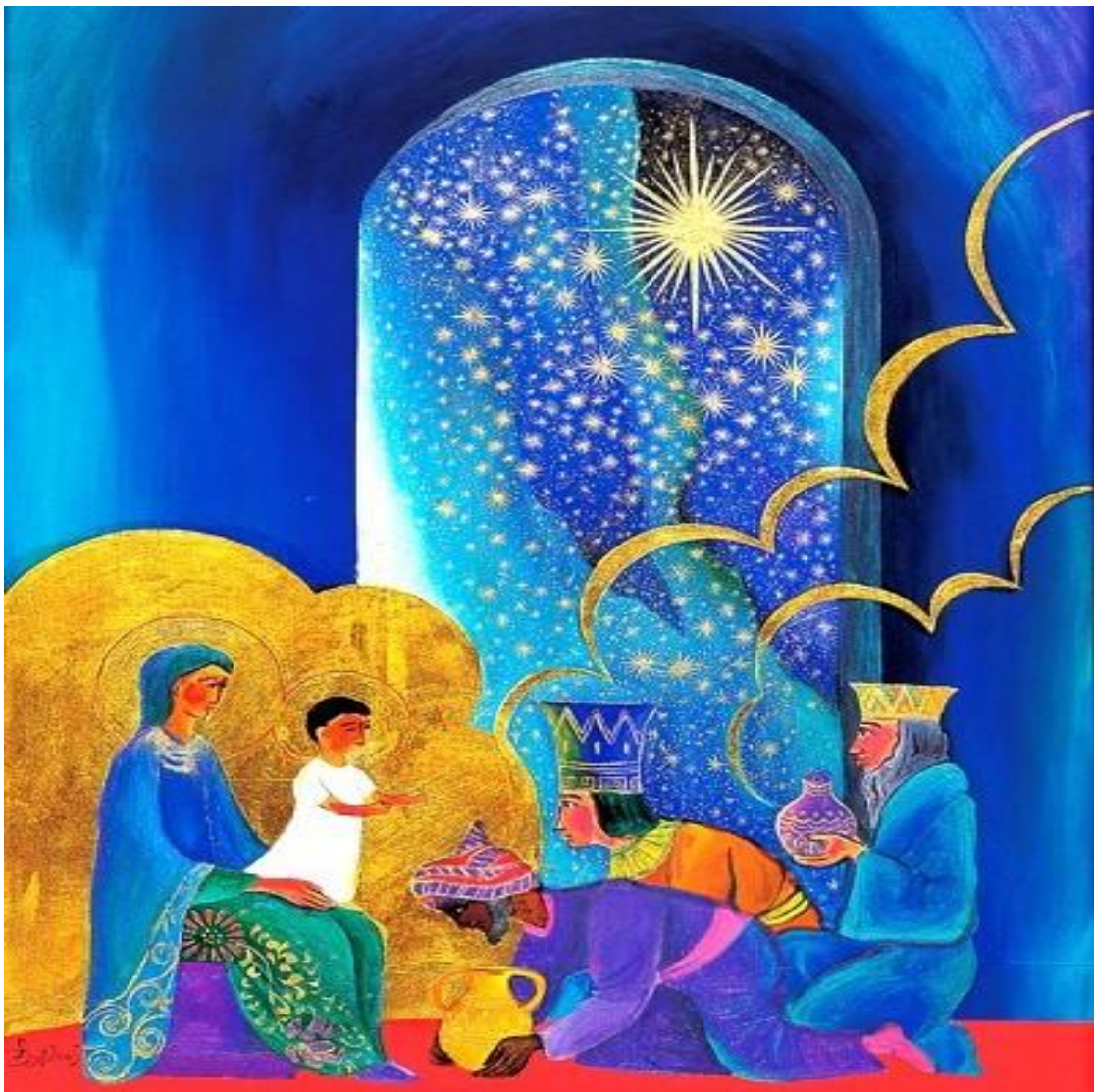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송구역분과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주님 공현 대축일 (2024년 1월 7일)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오 2,2)



‘주님의 공현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 그림: 조광호 신부님 인천교구 (출처: 가톨릭 신문)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마태오 2,11)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07번 '천사의 찬송'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성탄

천사의 찬송

107

서둘듯 Felix Mendelssohn

1. 천 사 찬 송 하 기 를 - 새 로 나 신 주 님 께
 2. 예 수 우 리 구 세 주 - 탄 생 합 을 보 고 서
 3. 천 주 성 자 예 수 는 - 하 느 님 의 뜻 대 로

찬 미 영 광 드 리 세 - 우 리 주 님 나 셧 네
 천 사 경 배 하 였 네 - 만 민 경 배 하 여 라
 동 정 녀 께 나 시 어 - 우 리 중 에 사 셧 네

온 세 상 의 백 성 들 - 기 썬 노 래 불 러 라 -
 의 로 우 신 예 수 는 - 세 상 의 빛 되 시 고 -
 하 느 님 의 자 녀 로 - 다 시 나 게 하 시 고 -

이 세 상 을 구 원 할 아 기-에 수 나 셧 네
 새 생 명 을 주 시 는 왕 께-경 배 드 리 세
 부 활 하 게 하 시 는 왕 께-경 배 드 리 세

이 세 상 을 구 원 할 아 기-에 수 나 셧 네
 새 생 명 을 주 시 는 왕 께-경 배 드 리 세
 부 활 하 게 하 시 는 왕 께-경 배 드 리 세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영광

(이사 60,1-6)

예루살렘아, 1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2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3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5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6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동방 박사들의 방문

(마태 2,1-12)

1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4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5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 ‘유다 땅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7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8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9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11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V4)
-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양치는 목자들을 생각하니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NV4)
-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RC2)
- 대림 시기를 보내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 그리스도” 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동들에게 큰 기쁨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저희와 저희 가족에게도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RC2)
- “큰 빛, 많은 즐거움, 큰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으므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살아가면서 항상 “큰 기쁨과 많은 즐거움”을 바라고만 있기에 기뻐하지 못했고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소박한 기쁨, 나의 기쁨”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RC2)
- 세례받으시는 새 신자분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RC3)
- 새해에는 주위의 이웃들을 더 살펴보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와 기도로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RC3)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 성가 셀라책 160번 '당신은 영광의 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60

당신은 영광의 왕



Maris Ford

G D/F# G G7 C Am7 D7

당 신은 영 광 의 - 왕 당 신은 평 화 의 왕

5 Bm B7 Em /D C Am A Dsus4 D7

당 신은 하 늘 과 땅 의 주 당 신은 정 의 의 아 들

9 G B7 Em C Am D C/D D7

천 사 가 무 릎 꿇 - 고 예 배 하 며 경 배 하 네

13 G Am7 Bm7 Em C C/D G

영 원 한 생 명 말 - 씬 당 신 은 예 수 그리스도 주 호

17 G D/F# Em C Am7 Dsus4 D

산 나 다 윗 의 - 아 들 - 게 호 산 나 불 러 왕 중 의 왕

21 G Bm7 Em Cm/Eb C C/D Gsus4 G

높 은 하 늘 엔 영 광 - 을 - 주 예 수 다 스 리 - 네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 성사를 받고...

처음으로 성당 문을 두드렸을 때, 앞으로 저희의 삶이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혹시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리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어서 빨리 세례를 받고 신앙인의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교회를 외면하고 살았을까 후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음은 저희에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겸손하게 배움과 믿음을 실천하면서 신앙인의 삶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리 수업을 이끌어 주시고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주신 교리 선생님과 낯선 교회 생활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선교부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산호 마태오, 김미양 크리스티나)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리라는 새로운 신앙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 동기님들 덕분에 이렇게 세례라는 어려운 첫걸음을 디딘 만큼 신앙인으로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굳은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과 선생님들께 뜻깊은 기회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현택 펠릭스)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한 계기로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당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 사람이 많아 일단 정겹고 따듯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처음이라 미사 시간이 어색하고 제 믿음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없이 성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부 자매님의 권유로 교리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리 수업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존재와 의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했을 때는 자신과 닮은 인간의 모습을 창조하셨으며,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성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궁금했을 때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인간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하느님의 모습에서 무한한 감동과 경외심이 저절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그토록 옳고 확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건넸을까요? 얼마나 정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전달했을까요?

저는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내 주변의 사람들, 세상에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렇게 사는 제 마음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하느님이 이토록 사랑했던 인간들이고, 하나하나의 영혼을 가진 소중한 사람들인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리수업과 세례식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느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 믿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세례식에서 하느님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다짐만은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안지빈 스텔라)

원래 저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리 수업을 다 받고 세례식을 마친 지금도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가족의 권유에 의해 의무적으로 다녔던 교회를 지금은 저와 제 주변을 위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리 수업 중 들었던 말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답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로 이끌어준 가족, 교리 수업하는 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 같이 수업받으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짧은 글을 마칩니다.

(한상훈 요셉)



본당 성서 공부 질문과 응답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주임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성서 강의를 본당 홈페이지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 강의 내용이나 성경 공부 중에 궁금한 내용은 반장님이나 Google Form으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QR Code를 스캔하셔서) 오승수 시몬 신부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요한복음서 11장 25-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이르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말씀은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고 생각했었는데, 라자로를 먼저 부활시키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라자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라자로의 부활은 물리적인 생명의 연장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몸 중심의 부활이 아니라 영 중심의 부활을 완성하신 겁니다. 라자로가 그렇게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라자로는 물리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어느 날 죽었을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라자로도 진정한 부활을 맞았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일까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부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사람들은 죽고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했을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몰랐을 뿐이죠. 예수님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어 몸소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라자로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계획을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은 복음서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자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반대파로 하여금 그분을 제거해야 겠다는 결정적인 마음을 먹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라자로도 제거하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라자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위한 촉매제 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드렸지만 인간 존재 모두의 부활 사건이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인간 존재들의 부활이 예수님 이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물리적 시간과 공간에서의 이야기일뿐 그 또한 하느님의 영원성 속에서 그러한 설명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2024 성경통독 월례모임

말씀과 함께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모임과 함께 '모세오경을 통독 공부'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본당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서를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통독하고 공부하여 교우분들의 성서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또는 그룹으로 매월 분량을 성서 통독/공부/기도 후 개인별로 정리한 내용을 숙제로 기록하여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전체 모임에 참석하여 나눕니다.

오경 통독 월례 모임 일정

모임 일시	장소	매월 통독 분량	성서공부 본당신부님 강의파일 범위
2024.1.31 (수) 7pm	소성전	창세기 1장~23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11~22
2024.2.28 (수) 7pm	소성전	창세기 24장~50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23~27
2024.3.27 (수) 7pm	소성전	탈출기 1장~20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28~31
2024.4.24 (수) 7pm	소성전	탈출기 21장~40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32~34
2024.5.29 (수) 7pm	소성전	레위기 1장~16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35~40
2024.6.26 (수) 7pm	소성전	레위기 17장~27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41~42
2024.7.31 (수) 7pm	소성전	민수기 1장~16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43~47
2024.8.28 (수) 7pm	소성전	민수기 17장~36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48~51
2024.9.25 (수) 7pm	소성전	신명기 1장~17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52~58
2024.10.30 (수) 7pm	소성전	신명기 18장~34장	성서공부 강의 녹음파일 59~61

※ 모임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매월 통독 분량: 한 달 동안 두 번 통독
- ◆ 참고서: 본당신부님의 강의 파일이나 각자가 마음에 드는 성경 해설서
- ◆ 준비물: 천주교 새번역 성경책이나 앱, 숙제, 필기도구, 개인컵/텀블러